

고은 불교 대하소설

밤새도록 파도치다

잠시의 불이 꺼진 뒤 심지 끝이 약간 뒤틀렸는지 그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없어지지 이번에는 우녀의 머지 않은 머리에서 나는지도 모를 쫄쫄한 냄새로 이어졌다. 본디 인담이 우녀를 데리고 이 섬에 건너 온 이래 그녀가 기거하는 곳을 따로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그녀가 제 정신이 아닌 것으로 여겨서 혼자 두기를 단념하고 오랜 수행자의 자신으로 한 방을 쓰기로 한 것이다.

한양에서 돌아오자 그동안 전혀 딴 사람이 되어있는 우녀 앞에서 거꾸로 인담이 그녀의 능(能)에 대하여 소(所)의 처지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를 그녀가 시키는대로 맨몸을 보이게 내버려 주었고 그 맨몸의 목욕까지 마치는 동안 그는 그녀의 객체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생각하였다. 그 생각은 어떤 후회나 체념도 아니었다.

“...내가 무씨(武氏)의 후신(後身)을 데려왔다. 이렇게 되다니!”

무씨란 무말할 것 없이 담나라 축천무후(則天武后)를 가리킨다. 미미한 신분의 여자가 이룩고 황제로 등극할 때까지 죽이고 찬하를 장악한 권세의 여제(女帝)였던 것이다.

약간 과장된 비유에 틀림없으나 적어도 이 무욕도의 갈대자방 암자 안에서는 그녀가 자리잡고 있는 위세가 깨닫없이 담당하였다. 그녀는 벌써 의젓하게 잠들어 있었다. 귀기울이면 그녀의 잠든 숨소리가 소복소복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럴 경우 차라리 파도소리는 숨겨 어디론가 다 철수해버린 군대처럼 자취가 없어야 하였다.

그만큼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파도소리에 익숙한 것이므로 차츰 두 사람의 음과 양의 체온이 가세(加勢)한 방안의 온기는 하얗게 되어 있었다.

처음 인담의 의식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그가 늘려진 자리를 걸어치고 일어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의 등짝이 방바닥에 딱 붙어붙어버리기도 한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내가 남편이지 바위가 되었는가. 왜 이다지 용을 쓸 수 없단 말인가!”

그의 옆에 단정하게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우녀의 자세에는 어떤 갈등도 없어 나지 않은 평상(平常)이 유지되는 것을 그 어둠 속에서도 여실히 알 만하였다.

그렇게 그녀는 잠들면서 젖은 머리가 골게 말라갔고 반대로 인담은 그녀의 잠든 숨소리에 귀문을 닫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임춘의 어떤 시에 「타락에 올라 풍소부는 짝이 되지 못하고 달로 달아나서 도리어 악을 흠치는 신선이 되었네(乘槎未作武陵仙 拜月還爲嶺南仙)」이라는 구절이 있음을 떠올린 인담으로서는 우녀가 마치 그런 신선이라도 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수룩 인담 자신은 그의 오랜 독신수행의 굳건한 심신에도 불구하고 그 신선의 잠에 대해서 결코 잠을 이룰 수 없

었다. 우녀의 몸에서 풍기는 그 체취가 무엇보다도 인담의 잠을 멀리 달아나게 하는 것인지 몰랐다. 그에게서 들릴락말락하는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 한숨이아말로 인담의 것이기보다 방안의 어둠에 필요한 것으로써 그것을 인담의 몸 안에서 아주 조금만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것은 조금만으로도 가히 신선의 약초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의 정수(精髓)인지도 모른다.

문득 인담은 고려시대의 스님 담인이 꿈에 나타난 사실을 되새겨 보았다. 그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꿈이었고 그 소중한 꿈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스님은 누구인가. 스승일진대 법(法)을 이어주는 어떤 징표가 있어야 하거늘 한갓 세상으로부터 영영 잊혀



수미산

9

불교는 해탈이 그 궁극의 목적이다. 불교는 궁극에 이르는 마당에서 윤회하는 우주와 나, 세상과 나, 너와 나라는 관계역시 한치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해탈과 윤회 그것은 처음에는 서로 모순을 낳아야 하였다. 그 모순을 녹이는 일이 불교의 역사라 할 것이다.

비록 무욕도 돌레를 터전으로 삼고 하늘 가득히 날아다니는 갈매기인들 그것이 어찌 몇백년전의 담인화상과 무관하다 할 것인가. 갈매기가 그러할진대 하늘이 인담에게는 이미 꿈 속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연을 맺은 처지인 것인가.

그런 스승이 몇백년동안 숨겨진채 햇빛을 보지 못한 시와 그밖의 글들을 찾아내게 인도하였다. 그것이 경장(經藏) 밖의 어떤 별난 논장(論藏)도 아닌 바에야 하필이면 시문(詩文)이리라.

물론 인담이 시 몇 수를 지어서 바닷바람에 날려버리는 시승(詩僧)을 겸한 선승이기는 하지만 선승인 바에 한 소식에 다가가면서 마치 새가 날라가며 뜰 한 방울을 땅에 떨어뜨려 땅 위에 걸여가는 말 엉덩이에 떨어뜨려도 그 사실을

저버린 한 불우한 시인의 문집(文集)이나 꿈 속에서 가리켜준 것이 아닌가.

혹시 꿈 속의 스승 담인이 임춘 자신은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의 막역한 친구가 아닌가. 친구가 아니라면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는 사이의 사람이란 말인가.

“모를레라” 라고 인담은 그의 옆에 누워있는 우녀의 잠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금도 몸을 움직이지 않는 대신 마음 속은 별판 가운데 해매는 짐승처럼 되고 있었다.

그의 스승은 다른 사람들의 스승과 같지 않다. 무엇보다 몇백년전의 사람이요 그가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담겨진 숭배의 대상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인담에게 고려의 승려 담인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이 기이한 인연은 너무나 불교적이었다.

오직 그에게 살아있는 것은 귀 뿐이었다. 그 귀 가득 파도소리가 섬전체를 들이쳐 난 파선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이 섬 기슭의 바위벼랑을 온몸으로 부딪쳐 죽어가기를 거듭하고 있었다. 인담에게 문득 밀교도량의 수미산이 떠올랐다. 법신(法身)으로서의 수미산이.

모르는 말인양 있으나마나한 법열(法悅)의 시 한 구절이아 어찌 멀리할 것까지 있었는가. 그렇다면 임춘의 세계와는 다른 불교세계 가운데 실상 임춘 따위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을 터이다.

그런데 이 문집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만난 인연으로 한 지향없는 낯자 우녀를 만났고 그녀를 데리고 오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 관계아말로 윤회를 펼쳐 버리고자 하는 공부에 대해서 세상 윤회



그림 · 최규일

서로 몸과 몸이 슬쩍 닿은 상태가 이 지경이니 만약 그들에게 바라문교(婆羅門敎)와 손잡은 탄트라(性力)의 성력(性力)을 섬기는 그 황홀경인 비밀불교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좌도(左道)의 이단(異端)이아말로 이 외딴 섬 무욕도를 다 붙태우고 남았을 것이다.

인담의 생각 가운데서 한동안의 꿈결인듯 우녀와의 농연한 육신관계가 일어났다. 그의 몸은 뜨거워졌고 그의 숨결은 홀로 가파르워졌다. 그런 공상 가운데서 우녀의 몸 위에 뛰어오른 그가 지극히 진지해졌을 때였다.

“으음!” 하고 우녀가 잠에서 깨어나 짧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 신음소리를 듣는듯 마는듯 인담의 공상이 딱 끊어져서 마음을 다잡은 근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이미 파계를 한 것이다. 내 마음이 어찌 내 몸과 다른 것이라고 하겠는가. ...나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 초심자에 지나지 않게 되었어.” 라는 회한을 심을 때에야 그의 귀에는 제대로 밖의 파도소리가 이제껏 수없이 뒤척인 그대로 뒤척여와 섬의 바위를 때려 제 몸을 부수고 있는 것이었다.

한밤중의 파도처럼 순교적인 것도 없으리라. 하현(下弦)달이 떠오를 무렵이었는데 그때까지 인담은 지향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현실의 파도소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여자의 잠은 다시 깊어졌다. 남자의 눈은 너무나 많은 전생에 실컷 잠깐 타인(他人)때가 흘러갈수록 약간 지치면서 한층 맑아지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잠은 눈을 떠보기도 하였다.

“왜 주무시지 않으세요 스님?”

이렇게 잠든 우녀가 잠을 깨어 인담 쪽으로 앞을 향하였다. 여자의 떠내려가는 것 같은 매혹의 체취가 더 인담의 코에 스며들었다.

“스님이 주무시지 않으시니 제 잠이 깨어버렸어요.”

“...”

“스님”

인담은 그녀에게 할 대꾸가 없었다.

“인담스님”

인담은 그 몸 속의 깊은 곳에 가려있었던 말 한마디가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우행자! 이제부터 그대가 내 스승인가 보오.”

그때였다. 우녀가 이불을 확 걷어치우고 일어났다. 그녀의 실의(室衣) 한 자락이 풀려서 그녀의 가슴이 가려지지 않았다. 만물빛에 그것이 눈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아니어요! 스님이아말로 새새생생 제 스승이세요.”

“...”

인담은 두 눈을 절대로 뜨지 않으려는 것처럼 굳게 감아버리고 있었다. 오직 그에게 살아있는 것은 귀 뿐이었다.

그 귀 가득히 파도소리가 섬 전체를 들이쳐 난파선(難破船)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이 섬 기슭의 바위벼랑을 온몸으로 부딪쳐 죽어가기를 거듭하고 있었다.

인담에게 문득 밀교도량(密敎道場)의 수미산이 떠올랐다.

“ 물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폐 비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배연이 없어' 완벽하게 소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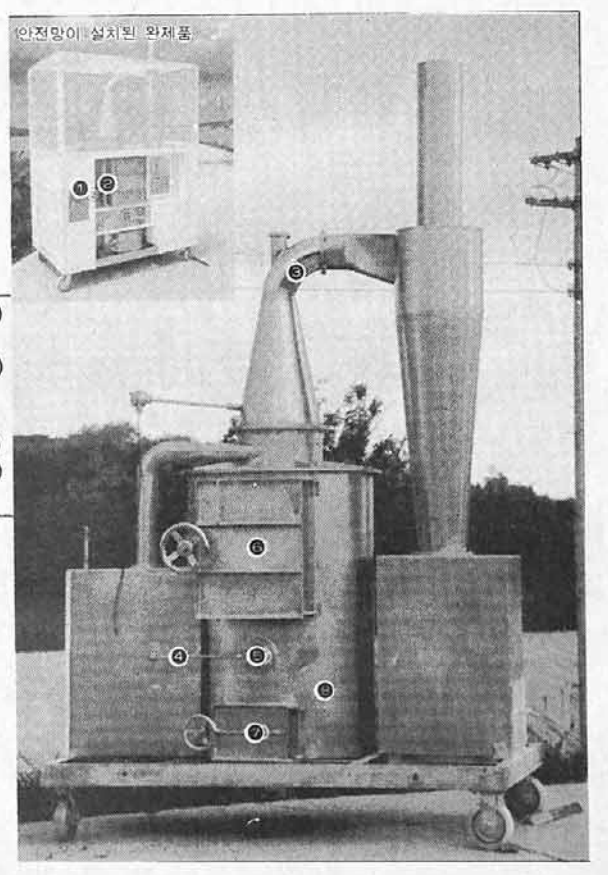
제 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불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 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불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4-8644 의정특허출원 94-8470, 8471, 8472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1
전화 : (0344) 64-7236, 62-3488
팩스 : (0344) 62-7012



- ① 소화기(비닐식)
- ② 공기주입 밸브
- ③ 안전밸브(가스 방출구)
- ④ 냉각파이프
- ⑤ 냉각용 콘 밸브
- ⑥ 투입구(소각물)
- ⑦ 배기구(연기제)
- ⑧ 소각로 노면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